마켓·부동산 08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metr⊕

新외감법 주총 엇갈린 평가… 투명성 제고 vs 과다 규제

〈회계업계〉

〈기업〉

국회 주총결산 토론회

회계업계

"감사위험·비용 줄어드는 선순환" 기업

"中企, 인력없어 감사대응도 못해"

올해 주주총회는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치러진 첫 주총이었다. 회계 감사가 깐깐해짐에 따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쏟아졌고,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은 늘어났다.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든 회계업계와 기업들의시각은 엇갈린다. 회계업계는 신 외감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 고, 상장사들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 지 않은 과도한 규제란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 와 미래'를 주제로 연속토론회의 첫번 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송 민섭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은 남의 돈을 쓰는 순간 '돈을 잘 쓰고 있 다'고 보고하고, 책임에 대한 검증을 받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발제자 와 패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들이 느끼는 회계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송 교수는 "신 외감법 도입으로 기업 의 감사시간과 보수가 증가했고, 비적 정 의견이 늘었다"면서도 "기업은 제무 재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사 부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외감법 도입의 취지는 결 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감 사 위험과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 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이 돈을 빌린 사람으

로서 주주들을 안심시켜주면 감사 위험 이 줄어들고, 다시 감사 비용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역시 "기업의 회계 비용이 과도할 수 있지만 외감법은 강화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자본이 많은 기업이 가져가면 투자가 늘고, 안 전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 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업

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저해되 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을 못낸다"면서 "신 외감법은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제 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감사 비용 증가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감 사 비용은 여전히 기업들에겐 '비용'으 로 느껴질 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신 외감법 도입 역시 기업의 사정을 고 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봤다.

상장회사 입장을 대변한 김종선 코스 닥협회 전무는 "(신 외감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제 등에 대해)기업들도 노력하 겠으나 기업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에게 감사비 부담과 함께 감사인력을 제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 구라는 것이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들 의 2018년 실적발표에 따르면 전체 35%가 적자를 기록했다.

김 전무는 "중소기업의 회계는 용역 으로 이뤄진다"면서 "중소기업이 갑자 기 내부 회계인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려면 유지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 게 된다"고 말했다.

무조건 정답만을 요구하는 회계업계 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코스닥 기업들은 회계감 사가 2월 하순부터 3월 초중순까지 모 두 이뤄진다.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특히 중소기업 은 인력이 없어서도 대응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특히신외감법내용중표준감사시간 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무는 "외감법에 따르면 금융위 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줬다"면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 복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 다.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절차도 신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표준감사시간은 한공회 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 산출을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과 회계업 계 공동 연구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 출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중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연 5.4% ELS 등 5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26일까지 스탠더드 앤드푸어스500(S&P500)지수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 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 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5.4%(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868호 (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 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 S) 4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1종 등 총 5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able E LS 865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스텝다 운형)는 니케이225(Nikkei225)지수 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손엄지 기자

유진투자증권

'레전드 오브 쏙쏙' 이벤트

유진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 로 총 1억원 상당의 경품과 투자지원금 을 제공하는 '레전드 오브 쏙쏙' 이벤트 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유진투자 증권 모바일 계좌개설 앱이나 웹을 통해 종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을 대 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고객들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이 벤트페이지에 접속후 '레전드오브쏙 쏙 대상조회 및 신청하기' 배너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GS건설, 내달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GS건설이 오는 5월 '과천제이드자 이'를 분양한다.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 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과천제이드 자이'를 오는 5월 분양한다고 22일 밝 혔다.

과천제이드자이는 과천지식정보타 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이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GS건설 의 자이(Xi) 옷을 입은 공공분양 아파 트로 과천시내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 한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49~59㎡, 높을 것으로 보인다.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GS건설 '과천제이드자이' 조감도

전용 ▲49m²A 104가구 ▲49m²B 127가 구 ▲59m²A 224가구 ▲59m²B 3가구 ▲59m²C 187가구 ▲59m²T 2가구등이 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이규성 기자 peace@

HDC현대산업개발

구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시공사 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 흥·성원·동진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지난20일온수동대신성결교회 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동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744명의 조합원 중 66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609표를 얻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재 건축 사업 수주는 도시재생사업에서 H 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첫 번째 수주 로, 온수동 최초의 아이파크로 지어질 전망이다. 대흥·성원·동진빌라주택재건 축정비사업은 서울 온수동 45-31번지

일대에 위치한 빌라 3곳을 통합 재건축 하는사업으로, 대지면적 5만5926m²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면적 49㎡~84㎡, 총 12개동 988가구 규모 다. 총 공사비는 2066억원으로, 오는 2021년 8월 착공해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압구 정현대아파트를시작으로 40여년간 42만가구를 공급한 경험과 아이파크 브랜드 파워로 조합원들의 높은 지 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온수역 일대를 랜드마크로 조성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 혔다. /이규성 기자

서울 인프라 다 누리는 '오렌지카운티 남산'

종로~을지로 직주근접 '블루칩'

임대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지역 오피스텔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3 대 업무 지구인 강남, 종로, 여의도 중 심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꾸준한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환금성의 척도로 꼽히는 배후수요 가 높기 때문이다. 공실률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배후수요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가치를 전망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 다양한 개발 호 재로 탄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는 지 역 부동산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평가 받는 이유다.

치해 역을 중심으로 교육,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가 조성, 수요자가 끊이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종로에서 중구를 잇는 중심업무지구(CBD) 권역은 70만근로 자를 배후수요로 두고 역과의 거리도 가까워 투자 수요가 높다.

이 가운데 중구 종로~을지로 중심 업무를 중심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오렌지카운티 남산'의 분양이 시작돼 실수요자들은물론투자자들의이목을 끌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남산은 지하 3층~ 지상 13층 총 1개 동 규모의 오피스 텔 144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다. 전용 18.49m²소형으로이뤄져있 으며 LG U플러스의 최첨단 IOT 시 특히 중심업무지구는 역세권에 위 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이 무상



'오렌지카운티 남산' /오렌지엔지니어링

으로 제공되는 복층형 구조로 설계 됐다.

출퇴근 인구가 밀집한 시청, 광화 문, 압구정 등이 5km 이내로 가까워 배 수후요도 풍부하다.

사업지 바로 옆 CJ 본사빌딩을 비롯 해 신라호텔 등 다수의 대형 그룹사들 이 가깝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도 도보 4분 거리로 대학교 1인 수요도 많 다. (문의 02-2276-1112)

/채신화 기자 csh9101@

상장사 불공정거래 예방 금감원, 예방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 교육 및 지역별 설명회 등 '찾아가는 불 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 일밝혔다.올해부터는코넥스상장나상 장예정기업등내부통제가취약한기업 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금감 원은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를 예 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 개사에는 오는 24일부터 금감원 직원 이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 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